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총 3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25. 10. 26.(일) 8:00	담당기관
		주영한국문화원

영국 언론이 주목한 ‘K-컬처’, 글로벌 트렌드 이끌어 주영한국문화원 「K-컬처 포럼 헤드라인 너머」 성황리 개최

- 영국 20개 언론 분석 기반 ‘2025 코리안 트렌드: 영국편’ 발표
- 문화 · 경제 · 사회를 잇는 융복합 포럼으로 한-영 문화 교류 확장

□ 주영한국문화원(원장 선승혜, 이하 문화원)은 10월 24일(금) 런던에서 ‘K-컬처 포럼: 헤드라인 너머(K-Culture Forum: Beyond the Headlines)’를 성황리에 개최했다. BBC와 파이낸셜타임즈 등 세계적 위상을 지닌 영국 주요 20개 언론의 한국 관련 기사를 분석한 ‘2025 코리안 트렌드: 영국편’을 발표하고, ‘탑 10 K-컬처 키워드’를 선출해 K-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.

○ 이번 포럼은 ‘한국 문화, 지금!’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K-콘텐츠와 K-푸드를 중심으로 한류의 최전선을 이끌어온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. 이어 오픈 포럼에서는 경제·문화·언론·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한-영 전문가 및 차세대 리더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교류와 담론의 장을 형성했다.

□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“K-소프트 파워는 감정 파워 (emotional power)입니다. 최첨단 기술과 융합된 감정 언어로 세계를 연결하는 힘입니다. K-컬처는 이제 디지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러한 한국미학을 ‘제 뜻을 신나게 펼치는 마음’이라고 불러봅니다. 제 뜻을 펼치면 재미있고, 제 뜻을 펼치지 못하면 화나고 속상한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.” 라고 포럼이 가진 한국미학의 가치를 강조했다.

□ 1부 ‘K-이니셔티브와 문화예술’ 기조연설에서는 영국 주요 20개 언론이 주목한 ‘2025 코리안 트렌드: 영국편’으로 5개 핵심 분야를 발표했다. K-이니셔티브의 영국 전략을 소개하고, 한류의 확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탐색했다.

○ 선승혜 원장은 ‘A Life in the K-Culture’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, ‘제 뜻을 펼치다’라는 한국미학으로 영국인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K-컬처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.

○ 영국이 경험한 5개 K-컬처 핵심 분야는: ▲문학으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글로 승화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, 수전최(Susan Choi)의 <Flashlight> 부커상 최종 후보 선정, 에든버러국제도서전의 웹소설 발표 ▲시각예술부분으로 상처와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를 보여준 테이트 모던 특별전 이미래 <열린 상처>와 헤이워드 갤러리 특별전 양혜규<윤년>▲음악으로 소녀들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표현한 하이드 파크와 웹블리 스타디움의 블랙핑크(Black Pink) 공연 ▲케이팝으로 디지털 알파 세대를 중심에 둔<케데헌(K-POP Demon Hunters)>, ▲문화유산으로<디지털 문화유산: 인공지능은 당신과 함께 (Digital Heritage: AI with You, 2024)>와<염화미소: 인공지능과 문화유산 (Endless Bonds: AI and Korean Heritage, 2025)>로 AI를 통해 한국미학의 감성과 유산을 현대적으로 생성한 트렌드를 제시했다.

○ 이어 문화원에서 언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김다석 실무관은 BBC, 파이낸셜타임즈, 이코노미스트 등 영국 20개 언론이 발간한 한국 관련 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, ‘탑 10 K-컬처 키워드 (Top 10 K-Culture Keyword)’를 공개했다. 분야별, 주제별, 시기별 보도 경향을 분석해 영국 내에서 주목받은 한류의 흐름을 조명하고, 문화 분야의 세부 키워드 10개를 발표했다. 탑 10 문화 키워드로는 ▲케이팝 데몬 헌터스 ▲오징어 게임 ▲반전(plot twist) ▲손흥민 ▲블랙핑크 ▲떡볶이 ▲고추장 ▲서도호 ▲글라스스킨(Glass Skin) ▲해녀를 선정했다. 특히 “OTT 플랫폼의 대중화로 K-콘텐츠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으며, K-푸드는 분식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과거에는 한국어 어휘를 영어로 풀어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, 이제는 한국어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만큼 그

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”고 분석했다.

□ 2부 ‘K-컬처 패넬토론’에서는 ‘K-콘텐츠’와 ‘K-푸드’를 주제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.

○ 문화원 홍보 매니저 이혜수는 “2025년 영국 언론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도된 ‘K-콘텐츠’와 새롭게 주목받는 ‘K-푸드’를 핵심 키워드로 전문가 패넬 토론을 구성했습니다. ▲주별 평균 글로벌 도달수 4억 5천만명을 보유한 BBC의 한국 문화 보도 변화 ▲글로벌 차세대가 주목한 한국 문화의 특성 ▲대중과 하이엔드 문화를 모두 사로잡은 한식의 매력을 현장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신 뜻깊은 자리”라며 패넬토론의 의미를 강조했다.

○ BBC 이윤녕 기자는 “지난 10년간 BBC의 한국 문화 보도는 단순 스트레이트성 트렌드 기사에서 사회적·문화적 맥락을 다루는 심층형 보도로 발전해왔다”며, “특히 25년 케이팝 디몬 헌터스와 같은 사례는 K-컬처의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상징한다”고 밝혔다.

○ 영국남자의 유튜브 채널에 출현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아르망 드 램빌리는 (Armand de Lambilly)는, 한국과 영국을 넘나들며 접한 한국 문화의 강점은 ‘진정성(Authenticity)’와 ‘정서적 공감력(Emotional Connection)’에 있다고 발표하며, “영국 20대들은 섬세함과 따뜻함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○ 영국 내 한국 음식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비고 CJ 푸드 세일즈의 한지수 법인장은 K-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‘경험성 식문화 (Experience-led Culture)’로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. 특히 영국 내 비비고 진출 사례를 통해, ‘쉽게 요리 가능한 제품 (On the Table)’, ‘참여형 콘텐츠 중심’, ‘K-음식 생태계 조성’을 수출 전략으로 발표했다.

○ 만다린 오리엔탈 런던 메이페어에서 한국 파인 다이닝 ‘솜씨’ 레스토랑

으로 이름을 알린 김지훈 셰프는 한국의 미를 영국에서 알리며 갖는 책임감, 한식이 갖는 정성이 담긴 K-푸드의 매력으로 한식의 미래를 발표했다.

□ 3부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‘오픈 포럼’이 열렸다. ▲넷플릭스, 유튜브 등 국내외 콘텐츠 산업 종사자, ▲BBC, 가디언, 로이터 등 언론인, ▲영국 문화부, 브리티시 카운슬 문화외교 관계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 수출의 확장 전략을 논의하며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.

□ 이번 포럼은 한국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‘K-이니셔티브’의 비전으로 문화적 전환점이 될 순간임을 예고한다. 주영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영국과 한국의 문화 전문가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, 한국 문화가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.

- 붙임 1. ‘K-컬처 포럼: 헤드라인 너머’포럼 개요
2. ‘K-컬처 포럼: 헤드라인 너머’포럼 홍보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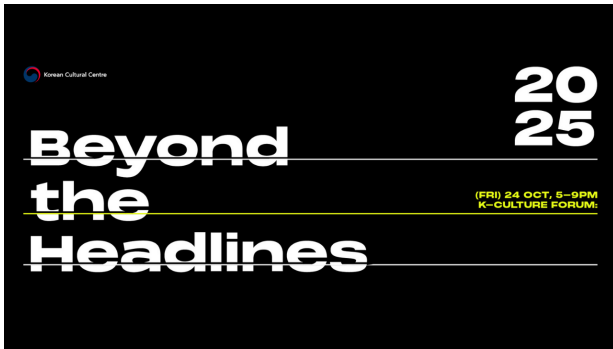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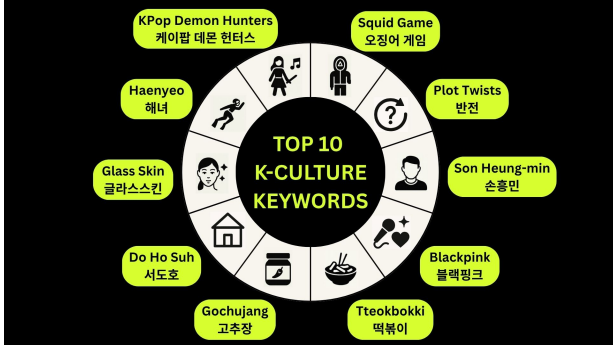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주영한국문화원	책임자	원장	선승혜 (s.sun@kccuk.org.uk)
		담당자	실무관	이혜수 (hs.lee@kccuk.org.uk)



□ 포럼 개요

- 가. 행사명 : K-컬처 포럼: 헤드라인 너머 (K-Culture Forum: Beyond the Headlines)
- 나. 일시 : 2025년 10월 24일 (금) 17:00 - 21:00
- 다. 장소 : 주영한국문화원
- 라. 행사내용: 2025년 영국 주요 20개 언론이 보도한 한국 문화 기사 데이터 분석 결과 바탕 '2025 코리안 트렌드: 영국편'과 '탑 10 K-컬처 키워드'발표. 언론과 업계 전문가 토크 및 네트워킹

붙임2 포럼 홍보물

	
포럼 포스터	1부 2025 코리안 트렌드: 영국편
	
1부 탑10 K-컬처 키워드	2부 K-컬처 패널토론

전체 고화질 사진 링크: [K-컬처 포럼 헤드라인 너머_보도자료 사진](#)